



김원섭 끝내기 만루포... 9연승 질주

KIA 극적인 역전승... SK 군산 2연전 싹쓸이

김상현 8일 3연타석 홈런... 고향팬 성원 보답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다”

KIA 타이거즈가 9일 군산월명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9회 김원섭의 끝내기 만루홈런에 힘입어 6-3의 짜릿한 역전극을 펼쳤다.

이날 승리로 KIA 타이거즈는 파죽의 9연승을 달렸다.

이용규의 2루타로 경기를 시작한 KIA는 2사 3루에서 최희섭의 내야안타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2회 무사 1·3루에서 팽발

을 처리하던 유격수 김선빈이 발목을 삐끗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점수는 1-1이 됐다.

김상현의 실책으로 시작된 4회 위기에서는 SK 김연후의 2루타와 김강민의 중전안타로 2점을 내주며 1-3이 됐다. 2점차로 뒤지던 8회 KIA에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긴 침묵을 이어오던 이현근이 8회 18타석 만에 안타를 신고했다. 7이닝을 1실점으로 막던 SK 선발 클로버가 이승호로 교체됐지만 이용규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면서 무

사 1·2루. 이후 김원섭의 보내기 번트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종범이 몸에 맞는 볼로 나가면서 1사 만루가 됐다.

타석에 들어선 최희섭이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희생플라이를 터트리며 1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9회말 선두타자 나지완의 큼직한 타구가 우익수에게 잡히면서 원 아웃이 됐고, 안치홍 마저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남은 아웃카운트는 하나.

KIA의 무서운 뒷심이 기적을 이루었다.

차일목의 대타로 나온 김상현이 볼넷을 끌라내며 마지막 볼넷을 살렸다. 이현근과 이용규가 연속해서 볼넷을 얻어내며 2사 만루. 타석에 들어선 김원섭이 정우람의 초구를 받아 우측 담장을 넘기며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시켰다.

역전 끝내기 만루 홈런은 시즌 2호 통산 4

번째 기록이다. 2001년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무대에 데뷔한 김원섭의 개인 첫 만루홈런이기도 했다.

팀에 승리를 선물한 김원섭은 “황병일 타격코치가 홈런을 치는 생각으로 큰 스윙을 하라고 주문했는데, 예상대로 직구가 들어왔고 풀 스윙을 해 홈런을 만들어 냈다”고 홈런 상황을 설명했다.

김원섭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기쁜 선물을 주신 것 같다”고 지난 6월19일 육종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진한 그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타점머신’ 김상현은 8일 3연타석 홈런으로 팀의 8연승을 견인한데 이어 9일에는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고향팬들 앞에 시원한 방망이쇼를 선보였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美프로야구 무대 선 위성미 미국 여자 프로 골퍼 미셸 위(위성미)가 2009년 8월 8일 로스 앤젤레스에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즈와 로스 앤젤레스 다저스간의 야구 경기가 벌어지기 직전 시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석이라도 즐거워

더위도 못말린 군산 야구 열기... 세번째 만원사례

더위도 막지 못한 군산의 야구 열기. 9일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와의 경기가 열린 군산월명야구장에 1만1천 관객이 가득 들어서면서 군산 세 번째 만원이 기록됐다.

KIA에게는 올 시즌 15번째 만원 사례이자 지난 1일 삼성과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4경기 연속 매진이다.

뜨거운 야구 열기 때문에 8일 경기에서는 만원관중수 집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5월 1·3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발표된 만원 관중수는 1만1천명이었다.

그러나 8일 KIA 1위 행진에 신이 난 군산 시민들은 물론 서울·광주 등지에서 많

은 야구팬들이 찾아 ‘입석포’까지 등장했다. 서서라도 KIA의 경기를 지켜보겠다는 팬들의 야구 열정때문에 이날 만원관중수는 1만1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증가했다.

호남·충남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9일 군산의 낮기온이 32.3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군산월명구장은 일찍부터 야구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경기 개시 1시간 55분만인 6시55분 경기장이 꽉 들어찼다.

그러나 선수들은 샤워시설과 경기장내 냉방시설 부족으로 더위와 씨름을 해야 했다. 9일 무더위 때문에 훈련량까지 줄인 선수들은 마땅한 공간이 없어 선수단

버스에서 더위를 식히는 등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산 방문이 즐거운 선수도 있었다.

올 시즌 KIA의 해결사로 맹활약하고 있는 김상현은 가족들 앞에서 3연타석 홈런을 터트리는 등 맹활약했고, 돌아온 ‘날쌘돌이’ 이용규도 사촌동생과 그리운 드를 뛰는 즐거운 경험을 했다.

볼보이로 경기장에 나온 군산남중 야구부 이준현(3년·1루수)군이 이용규의 사촌동생. 본적이 군산인 이용규는 지난 5월 경기 때는 부상으로 재활군에 있어서 사촌동생과 만나지 못했다.

/군산=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지희 아쉬운 준우승

JLPGA 투어... 신지애 7위

이지희(30·진로재팬)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역사 레이디스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지희는 9일 일본 홋카이도 에미나 골프장(파72·6천37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우에다 모모코, 아리무라 치에(이상 일본)와 함께 동타를 이뤘지만 연장 두번째홀에서 우승컵을 넘겨줬다.

연장 첫번째 홀에서 아리무라가 먼저 탈락한 뒤 이지희는 두번째홀에서 버디를 잡은 우에다에게 패했다.

김소희(26)가 공동 5위(9언더파 207타)에 올랐고 오랜만에 일본대회에 출전한 신지애(21·미레에셋)는 8언더파 208타로 7위에 자리했다.

우즈 역전쇼 기대

WGC 해링턴에 3타차 추격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셋째 날 팽타를 휘두르며 또 한 번의 역전쇼를 예고했다.

우즈는 9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의 파이어스톤 골프장(파70.7천400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단숨에 5타를 줄였다.

전날 2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주춤했던 우즈는 중간합계 7언더파 203타를 적어내며 공동 13위에서 단독 2위로 뛰어올라 10언더파 200타를 친 선두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에 3타차로 따라붙었다.

한편 1라운드에서 톱10에 진입하며 관심을 끌었던 뉴질랜드 교포 이진명(19·캘러웨이)은 5오버파 75타를 치는 부진으로 순위가 공동 61위(6오버파 216타)로 떨어졌고 최경주(39·나이키골프)도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공동 71위(9오버파 219타)에 머물렀다.

광주일고 26년만에 ‘봉황’ 품나

오늘 천안북일고와 봉황기독교야구 결승 다름

광주일고가 26년만의 봉황기 우승에 도전한다.

광주일고는 8일 수원야구장에서 벌어진 제39회 봉황기전국고교야구대회 신일고와의 준결승에서 4번 강백산의 투런포를 포함 장단 11안타를 몰아치며 10-2로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1983년 봉황기를 품에 안았던 광주일고는 26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상대는 충남의 강호 천안북일고.

천안북일고는 8일 유신고와의 준결승에

서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킨 임규빈·김용주의 활약에 힘입어 3-0으로 영봉승을 거두고, 올시즌 세 번째 전국대회 우승 도전에 나섰다. 올 시즌 전적만으로는 천안북일고가 한 발 앞서 있다. 천안북일고는 올해 황금사자기와 청룡기 결승에 진출하는 등 막강한 전력을 과시한 반면 광주일고는 황금사자기 16강에서 고배를 마셨고, 청룡기 8강에서는 천안북일고와 맞대결을 벌여 1-6으로 완패하는 등 한 번도 전국대회 4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황금사자기 우승을 진두지휘했던 광주일고 허세완 감독은 ‘악바리’ 이정훈(전빙그레)감독과의 사령탑 대결을 벌이게 됐다.

SK와의 군산 홈경기에서 후배들의 결승 진출 소식을 접한 KIA 이종범은 “1988년 청룡기와 전국대회 우승을 해봤지만 봉황기와는 인연이 없었다”며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바란다”고 후배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청룡기 패배 설욕에 나서는 광주일고와 두 차례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풀려는 천안북일고의 봉황기대결은 10일 오후 6시30분 수원야구장에서 펼쳐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목포 **국제여객선터미널 정기셔틀버스운행 (7/25일부터~매일)**

셔틀버스 및 안락 편의 및 예약 : (주)우동관광 062)383-9042